

## I. 경제동향

### 1. 실물경제

#### □ 글로벌동향

- 2017년 4/4분기중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물가 오름세가 확대

#### □ 국내동향

- 2017년 4/4분기중 국내 경제는 전분기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성장률이 일시 둔화되었으나 민간소비 개선세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

### 2. 통화정책

#### □ 글로벌동향

-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 및 일본 등 여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기존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

#### □ 국내동향

- 한국은 기준금리가 1.50%로 동결된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매우 완만한 금리인상 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

### 3. 자금흐름

#### □ 글로벌동향

- 2017년 3/4분기 글로벌 자금유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순유입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국가간 은행자금 이동은 증가
- 2017년 4/4분기 신흥국으로의 펀드자금 유입은 순유입 규모가 둔화

#### □ 국내동향

- 2017년 3/4분기중 국내부문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가계 및 비금융법인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금융법인의 순자금운용 규모 증가로 전분기보다 확대
- 기업의 자금조달은 채권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감소하였으나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증가

### 4. 외환시장

#### □ 글로벌동향

- 미달러화는 전년말 이후 주요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약화 전망 및 보호무역 정책 우려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약세를 보인 반면 유로화는 강세를 시현
- 신흥국 통화는 국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다 2017년 12월 이후로 글로벌 미달러화 약세 및 경기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강세

#### □ 국내동향

- 원화는 글로벌 달러화 약세, 국내 경기 개선, 북한 리스크 완화 등으로 강세를 보인 이후 금년 들어서는 전년말 수준에서 등락

## II. 자본시장동향

### 1. 주식시장

#### □ 글로벌동향

- 2017년 4/4분기중 주요국 주가지수는 글로벌 경기의 꾸준한 회복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총수익지수, 자기자본이익률 등 관련지표들도 꾸준히 개선
- 그러나 2018년 1월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선진국 및 신흥국이 하락세로 반전

#### □ 국내동향

- 2017년 4/4분기중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지수 모두 상승하였으나 1월말 이후 하락 전환
-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중형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짐

### 2. 채권시장

#### □ 글로벌동향

- 2018년 2월중 미국 국채금리는 경기여건의 개선과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폭으로 상승한 반면, 유로 주변국 및 일본 국채금리는 안정세
- 미국 장단기 금리차는 향후 경기상황에 대한 부정적 전망 대두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축소
- 2018년 2월중 신흥국 국채금리는 하향 안정세

#### □ 국내동향

- 2017년 4/4분기 채권 발행시장은 국채와 회사채 발행물량 감소로 발행규모가 감소하고, 유통시장에서도 국채 거래 부진으로 거래량이 크게 감소
- 국내 국고채 금리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부각, 기준금리 인상, 미국의 세제 개편안 통과에 따른 미국채 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모든 만기물의 금리가 상승하였고, 장단기 스프레드는 중단기물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며 크게 축소

### 3. 파생상품시장

#### □ 글로벌동향

- 2017년 4/4분기 글로벌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규모는 주식파생상품의 변동성 증가로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
-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금액은 금리파생상품의 거래량 감소로 전분기대비 8% 감소

#### □ 국내동향

- 2017년 4/4분기 코스닥150 선물의 거래대금은 지수상승으로 인한 ETF자금 유입 등으로 전분기대비 큰 폭(339%) 증가
- 2017년 4/4분기 국내 ELS의 발행액은 연말 기관들의 고액발행으로 전분기대비 51% 증가

## III. 금융투자업동향

### 1. 증권산업

#### □ 글로벌동향

- 2017년 3/4분기 글로벌 투자은행 IB부문 수수료수익은 전분기수준 유지
- 2017년 3/4분기중 상위 5대 글로벌 투자은행 영업수익은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으나 순이익률과 당기순이익은 증가

#### □ 국내동향

- 2017년 3/4분기말 국내 증권사의 자기자본 총계는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자금조달·운용규모는 감소
- 2017년 3/4분기중 투자은행 및 자기매매 부문의 실적 둔화로 순영업수익은 감소하였으나, 영업외수익 증가로 당기순이익은 증가

## 2. 자산운용산업

### □ 글로벌동향

- 글로벌 공모펀드 순자산은 전 지역에서 자금이 순유입되며 2017년 3/4분기말 기준 38.9조달러를 기록(전분기대비 5.6% 증가)
- 주요국 중 미국 공모펀드 시장의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

### □ 국내동향

- 국내 자산운용시장 규모는 2017년 4/4분기말 1,032조원으로 전분기대비 0.5% 증가
- 공모펀드시장은 채권형 및 MMF에서의 자금유출로 소폭 축소된 반면, 사모펀드와 투자일임시장은 각각 0.9%, 1.3% 성장
- 펀드판매시장에서 자산운용사 직판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관투자자 판매 비중은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
- 2017년 3/4분기중 자산운용사의 영업이익은 수수료수익 확대로 전분기대비 7.5% 증가

## 3. 헤지펀드

### □ 글로벌동향

- 2017년 4/4분기 글로벌 헤지펀드 시장규모는 투자자금의 순유입세 지속과 자산가치 상승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인 3.21조달러를 기록
- Macro, Equity, Multi 전략을 사용하는 헤지펀드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2017년 4/4분기에는 Macro 및 CTA 전략을 중심으로 신규투자가 증가
- 북미 지역 헤지펀드 시장은 투자자금 순유출로 비중이 다소 축소된 반면 유럽과 아시아 헤지펀드 시장은 성장세를 지속

### □ 국내동향

- 2017년 4/4분기말 국내 헤지펀드 시장규모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설정액이 전분기대비 감소하여 현재 펀드 수 765개, 설정액 12.4조원 수준

- 2017년 4/4분기중 청산된 채권형펀드들의 영향으로 상위 1~2위 프라임브로커의 시장 점유율은 감소한 반면 신규펀드들과의 계약에 힘입어 상위 3~4위 프라임브로커의 계약고는 확대
- 투자전략을 기준으로 보면 4/4분기중 Multi, Long biased, Event Driven 전략을 중심으로 신규투자 증가

#### 4. 벤처캐피탈 및 PE

##### □ 글로벌동향

- 2017년 4/4분기중 글로벌 벤처캐피탈 및 PE의 자금모집은 아시아 지역의 급성장으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
- 2017년 4/4분기중 글로벌 벤처캐피탈과 PE(바이아웃)의 신규투자 모두 증가세
-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PE 신규투자자 회수실적은 모두 부진

##### □ 국내동향

- 2017년 4/4분기중 벤처캐피탈 자금모집과 신규투자 모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효과에 힘입어 증가세
- 벤처캐피탈 회수시장에서 IPO와 M&A의 비중은 전분기대비 격차가 확대
- 2017년 4/4분기중 PEF의 자금모집은 다소 부진하였으나 신규투자자 회수실적은 증가

#### 5. M&A 및 IPO

##### □ 글로벌동향

- 2017년 4/4분기중 글로벌 M&A 거래규모와 거래건수는 전분기대비 증가
- 2017년 4/4분기중 글로벌 IPO 시장의 거래규모도 전분기대비 확대

□ 국내동향

- 2017년 4/4분기중 국내 M&A 거래규모는 초대형딜의 부재로 인해 전분기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거래건수는 증가
- 2017년 4/4분기중 국내 IPO 거래규모와 거래건수는 전분기대비 모두 대폭 감소